# 93년 만의 '귀향'

##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47책 반환
## '기증' 이냐, '환수' 냐 뒷말
## 해외 문화재 체계적 파악과 연구 급선무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史庫, 역사서를 보관하던 곳)본 47책이 돌아온다. 서울대와 도쿄대는 지난 5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쿄대가 소장 중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을 서울대 규장각에 기증하는데 양교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보 151호이며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은 총 1,893권 888책으로 임진왜란 이후 태백산과 적상산, 오대산, 강화도 사고에 보관되다가, 오대산 사고본을 1913년 초대 조선총독인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가 일본으로 반출했고, 이번에 9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나 '기증' 이냐 '환수' 냐를 두고 무성한 뒷말도 낳고 있다. 도쿄대는 '기증' 을, 서울대는 '환수' 를 명문화하면서, "국제 현실 속에서 약탈된 문화재를 반환받는 진일보한 방법" 이라는 평가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우리 권리를 스스로 부인한 치욕적인 일" 이라는 비판이 함께 제기되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불교계,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 가 환수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었고, 약탈 문화재에 대한 반환이 국제적인 흐름인 상황에서 서울대가 '이벤트' 에 가깝게 일을 진행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러나 정작 볼썽사나운 일은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이 돌아오기도 전에 '쟁탈전' 이 시작된 것이다. 오대산 월정사 측은 "원래 보관 장소인 월정사에 보관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마저 고려하는 분위기다. 반면 서울대 측은 "일단 반환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며, 보존 장소는 문화재청의 결정을 따르겠다"면서도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규장각이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한다.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이 가필과 교정 등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 조선왕조실록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기증이냐 환수냐, 어디에 보관하느냐를 두고 복마전을 거듭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약탈되거나 유출된 우리 고문서 등 문화재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많은 양인지 제대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와 도쿄대가 조선왕조실록 반환을 확인하는 기자회견이 연 것은 지난 5월 31일이고, 일본 도야마(富山)대학 후지모토 유키오(藤本幸夫) 교수가 《일본 현존 조선본 연구》를 발간한 것은 그보다 한 달여 전이다. 11~19세기 사이 일본으로 유출된 고려와 조선의 고서 5만여 권의 목록을 집대성한 것으로, 조선 서지학의 권위자인 후지모토 유키오 교수가 35년에 걸친 답사와 조사 끝에 선보인 책이다. 1권은 고려와 조선시대 개인문집 1만 권을 정리했는데, 편찬 작업만 꼬박 8년이 걸렸다. 나머지 4만 권에 대한 작업은 향후 7~8년의 시간을 들여 3~4권의 책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가 손놓고 있는 사이, "1960년대 한국 유학 당시 도움을 준 한국 지인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었다"는 한 일본인 연구자에 의해 일본으로 유출된 고문서의 엄청난 양과 실체가 확인된 셈이다.

기록문화의 보고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반가운 현상임에 틀림없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국립박물관에 보관된 외규장각 도서를 비롯, 해외에 산재해 있는 고문서 등 문화재들이 환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정작 선결과제는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 규모를 파악하고, 이들이 왜 반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물론 학문적 연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취재_장동석 기자